



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 보도

2015년 2월 9일
(월요일)

서울포스트 4면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강북구청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어린이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아래사진은 수유종합사회복지관 4층 경로당 식당)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김도연)에서는 제186회 임시회 회기 중 지난 3일 오전 11시 수유종합사회복지관(강북구 4.19로 23길 37-6 소재)을 방문하여 복지관 시설 및 경로식당 운영 실태를 둘러보았다. 이어 관내 어린이집 1개소를 예고 없이 방문했다.

복지건설위원회 의원들(김도연, 이용균, 박문수, 이영심, 한동진, 유인애, 김명숙)은 수유종합사회복지관에서 구청 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복지과장, 담당팀장 및 담당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도윤 복지관장으로부터 복지관 설립목적, 시설규모, 운영현황, 경로식당 운영 실태 등을 보고 받았다. 이 후 김도연 위원장과 소속 의원들은 수유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과 2015년도 사업계획 및 복지관 사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도연 위원장과 위원들은 복지관 4층 경로식당을 둘러보고 무상급식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고생하시는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였다.

또한 복지건설위원회 의원들은 오후 1시 30분 강북구청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견학하고 최근 유아 폭행 등으로 사기가 떨어진 어린이집 교사들을 격려하며 앞으로 더욱 애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어린이 보육에 힘써 달라고 부탁했다.



동북일보 5면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 현장활동 펼쳐

수유종합사회복지관 방문해
사업계획과 애로사항 청취
및 어린이집 불시 방문



▲ 최근 어린이집 유아 폭행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 강북구청어린이집을 예고 없이 방문한 복지건설위원들.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김도연)에서는 제186회 임시회 회기 중 지난 3일 오전 11시 수유종합사회복지관(강북구 삼양로 112길 5, 수유동)을 방문하여 복지관 시설 및 경로식당 운영 실태를 둘러보았다. 이어서 오후 1시 30분에 최근 어린이집 유아 폭행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 관내 어린이집을 1개소를 예고 없이 방문하였다.

이 날 현장에는 복지건설위원회 김도연 위원장, 이용균 부위원장, 김명숙 의원, 박문수 의원, 유인애 의원, 이영심 의원, 한동진 의원과 구청 주민생활국장을 비롯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복지과장, 담당팀장 및 담당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도윤 시설장으로부터 수유종합사회복지관 현황 및 경로식당 운영 보고서를 통해 시설현황, 이용자현황, 종사자 현황, 복지관 사업 안내, 경로식당 운영 안내 등 상세히 보고를 받았다.

이어 김도연 위원장과 소속 의원들은 경로식당 운영 및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질의와 복지관장의 답변을 통해 수유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과 2015년도 사업계획 및 복지관 사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복지건설위원회가 앞으로 복지관 관련 의정활동의 방향을 찾는 의미 있는 현장 활동을 펼쳤다. 한편, 공도윤 시설장은 인근 어린

이집이 많아 사실상 복지관에서 운영 중이었던 어린이집은 6~7세반 아이들이 혼자히 부족한 상태이기에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하고 어르신들 보살핌 사업으로 전환하려고 지난 3년간 준비과정을 거쳐 올 2월 28일부터 전환 운영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복지관 4층 경로식당을 둘러보고 무상급식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고생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수유종합복지관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다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복지건설위원회 의원들은 오후 1시 30분 강북구청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견학하고 최근 유아 폭행 등으로 사기가 떨어진 어린이집 교사들을 격려하며, 앞으로 더욱 애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어린이 보육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박은주 기자 je1718@naver.com〉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 종합사회복지관 찾아 시설 살펴

어린이집도 찾아 운영 실태 살피며 보육교사 격려하기도



▲ 복지건설위원회들이 수유종합사회복지관의 복지관 시설 및 경로식당 운영실태를 살펴보는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김도연)는 제186회 임시회 회기 중인 지난 3일 오전 11시 수유종합사회복지관(강북구 4.19로 23길 37-6 소재)을 방문해 복지관 시설 및 경로식당 운영 실태를 둘러봤다. 이어 오후 1시 30분에는

최근 어린이집 유아 폭행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 관내 어린이집 1개소를 예고 없이 방문했다.

이날 현장에는 복지건설위원회 의원들(김도연, 이용균, 박문수, 이영심, 한동진, 유인애, 김명숙)과 주민생활국장

을 비롯해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복지과장 등 구 직원도 함께 참석했다. 공도윤 복지관장은 의원들에게 복지관 설립목적, 시설규모, 운영현황, 경로식당 운영 실태 등에 대해 상세하게 보고했다. 의원들은 경로식당 운영 및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해 질의하며 수유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과 2015년도 사업계획 및 복지관 사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위원회의 앞으로 복지관 관련 의정활동 방향에 참고하겠다고 약속했다.

의원들은 복지관 4층 경로식당을 둘러보고 무상급식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또 의원들은 오후 1시 30분 강북구청 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견학하고 최근 유아 폭행 등으로 사기가 떨어진 어린이집 교사들을 격려하며, “앞으로 더욱 애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어린이 보육에 힘써 달라”고 부탁했다.

시사프리 6면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눈부신 현장활동’ 펼쳐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김도연)에서는 제186회 임시회 회기 중 지난 3일 오전 수유종합사회복지관(강북구 4.19로 23길 37-6 소재)을 방문해 복지관 시설 및 경로식당 운영 실태를 둘러보았다.

이어 오후에는 최근 어린이집 유아 폭행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 관내 어린이집을 1개소를 예고 없이 방문했다.

이날 현장에는 복지건설위원회 의원들(김도연, 이용균, 박문수, 이영심, 한동진, 유인애, 김명숙)과 구청 주민생활국장을 비롯해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복지과장, 담당팀장 및 담당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도윤 복지관장으로부터 복지관 설립목적, 시설규모, 운영현황, 경로식당 운영 실태 등에 대해 상세하게 보고를 받았다.

또한, 김도연 위원장과 소속 의원들은 경로식당 운영 및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질의와 복지관장의 답변을 통해 수유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과 2015년도 사업계획 및 복지관 사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복지건설위원회가 앞으로 복지관 관련 의정 활동의 방향을 찾는 의미 있는 현장 활동을 펼쳤다.

아울러 복지건설위원회들은 복지관 4층 경로식당을 둘러보고 무상급식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고생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수유종합복지관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경로식당에 이어 강북구청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견학하고 “최근 유아 폭행 등으로 사기가 떨어진 어린이집 교사들을 격려하며 앞으로 더욱 애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어린이 보육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유영일 기자

